



# 내실 있는 일본의 데이터베이스 산업

일본 최대의 데이터베이스 전시회인 'DATABASE TOKYO 2004'가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동경 靑海에 위치한 일본 과학미래관에서 개최됐다. 매년 개최되는 이 데이터베이스 전시회는 일본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DPC)와 일본데이터베이스협회(DINA)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진흥기구(JST)와 한국과학기술협회(INFOSTA)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총무성 및 미국대사관이 후원해 일본의 24개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업이나 기관이 전시자로 참가했다. 또 전시와 함께 전시자들의 최신 데이터베이스 관련 솔루션에 대한 20여개의 주제를 행사 기간중에 발표하는 솔루션 세미나가 공동 행사로 진행됐다.

글 / 이창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기획조정실장

전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과학기술·특허·학술 및 비즈니스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부문에서는 Hitachi East Japan Solutions사, Acton Wins사, 모리사와, JIP INFOBRIDGE사 등이 참가했다. 이 부문에서는 Hitachi East Japan Solutions사의 자연어 검색, 개념검색 및 검색어 관련 키워드들을 검색 결과와 함께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을 갖추고,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프레임 정보와 고장정보의 검색 및 텍스트마이닝 툴로 CRM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검색시스템 CoreExplorer'이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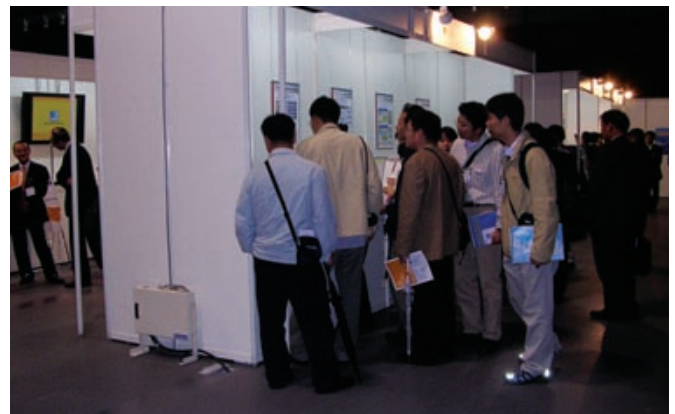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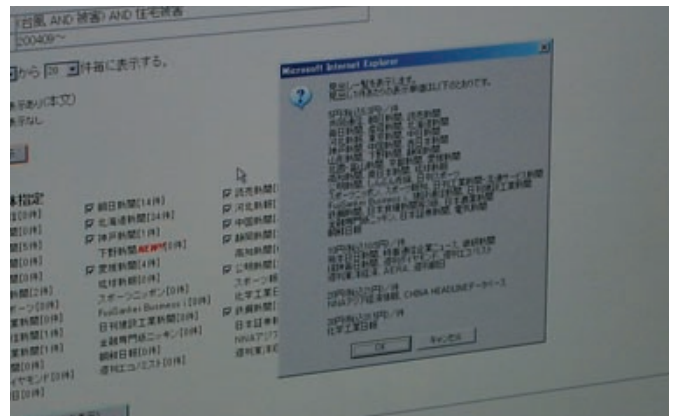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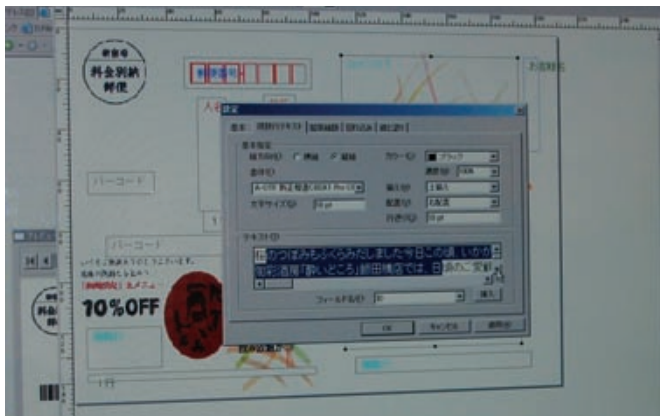
또 Acton Wins사의 주소 변환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인 AC-data와 우편물 미도착 정보를 집대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인 UA-data 등도 이목을 끌었다. 과학기술·특허·학술 부문에서는 JST, NII, 의학중앙잡지간행회 등이 참가했는데, 이 부문은 전통적으로 일본의 공공기관이 수십 년간 색인 초록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해 온 부문으로 JST의 JOIS와 JDream, NII의 학술정보포털시스템인 GeNii 등이 주목할 만한 제품이었다. 비즈니스 부문은 G-Search사, 니케이신문사, 동경상공리서치, NTT정보개발, 니케이BP사, Nexis-Lexis Japan 등이 참가해 지리정보, 경제 산업 정보 관련 제품을 선보였다.

## 일본의 경기 회복에 따른 DB 산업의 활성화 기대

일본은 지난 수년간 경기 침체로 인해 데이터베이스 산업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쳐왔다.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수익 모델보다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수익 모델 즉,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기반 산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일본의 산업 전반적인 경기 회복이 수년 뒤에는 DB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일본 DPC의 진흥과장 히데시게 사와다 과장은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사실상 데이터베





이 산업은 한두 해 집중적으로 투자해 성공을 볼 수 있는 산업군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빛을 볼 수 있으며, 일단 궤도에 서면 다른 업체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경우에도 과학기술, 특히, 학술 분야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 신용 정보를 유통하고 있는 제국데이터뱅크나 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는 JST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성공을 거둔 좋은 예이다. 기록 문화 환경이 몸에 배어 있는 일본인에게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체질적으로 맞는 산업이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시대가 도래하면 일본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에 대한 노력과 투자가 꽃 피울 것으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 일본 데이터베이스 산업과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기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십수년전 산업으로서 태동할 당시 정보 전달을 통한 수익 모델로 산업이 형성돼, 지금의 웹 환경에서는 주로 전자상거래의 인프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올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전문가 시스템과 결합해 사용자들의 문제를 언제 어디서나 해결할 수 있는 매체로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정보통신 학자들이 예견하고 있다. 베이스 산업 종사자의 한명으로서 제언하는 바이다.



# 살아 움직이며 진보하는 일본의 데이터베이스 산업

글 / 서태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표준화실장



일본에서 매년 개최되는 ‘도쿄DB쇼(DATABASE TOKYO 2004)’에 오래 전부터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참관단 28명과 함께 참여하게 됐다.

이번 전시회는 동경에 있는 일본미래과학관에서 개최됐다. 일본미래과학관은 6층의 전시실이 있었지만 우리가 참석하고자 하는 DATABASE TOKYO 2004가 열리는 곳은 1층에 있는 100평 남짓의 작은 전시실이어서 약간의 실망감을 가지고 전시장으로 입실했다. 참가 기관도 50여개 부스의 작은 규모였다. 전시회와 함께 솔루션 세미나도 함께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5개의 업체가 자기들이 개발한 데이터베이스 관련 솔루션의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부터 전시보다는 세미나를 더 강화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동향을 참관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시회보다는 세미나가 중심이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번 전시회는 과학기술·특허학술 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존, 비즈니스 존 등 3개의 존으로 구성됐다. 먼저 과학기술·특허학술 존에는 과학기술진흥기구(JST)와 국립정보학연구소(NII)를 비롯한 총 7개의 기관이 출품했다. JST는 과학기술문헌정보인 JOIS라는 대표 상품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기할만한 것은 대학, 연구소, 병원, 중소기업 등을 위한 정액제 검색 서비스인 JDream(JST Document REtrieval system for Academic and Medical fields)을 처음으로 선보인 것이다. 이와 함께 일반인들의 관심이 많은 의학, 약학, 건강, 식품, 안전 등의 문헌정보를 주제별로 검색할 수 있는 JDream petit도 개발했다. 이것은 Google과 같은 인터넷 검색 엔진과 유사한 GUI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용이 편리한 것이 특징이다.

NII는 자체 개발해 서비스하는 학술정보와 함께 새롭게 개발한 ‘新書맵’이라는 GUI를 강화한 새로운 검색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것은 관심 있는 키워드나 문장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관련이 있는 주제별로 새롭게 출판된 서적을 그래픽하고 다이내믹하게 보여주는 새로운 서비스이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존에는 日立東日本솔루션즈를 비롯한 6개 기관이 출품했다.

日立東日本솔루션즈는 전문검색과 개념검색으로 얻은 결과를 자동분류하고 GUI 조작을 통해서 자유자재로 확장 검색할 수 있게 하는 CoreEplorer라는 정보검색시스템을 선보였다. 그 밖에 비즈니스 존에는 NTT정보개발, 지서치 등의 11개 업체가 출품해 자신들의 제품을 소개했다. 개인적으로 과학기술정보의 표준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JST와 NII의 부스를 집중적으로 살펴 보았다. JST와 NII는 생각했던 대로 과학기술정보 제작 및 서비스 부문에서 꾸준한 진보를 보이고 있었다.

전시회의 걸모습은 조용하게 보였지만 그 곳에서 살펴 본 일본의 데이터베이스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고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었다. 백적지근한 홈페이지는 많아도 제대로 된 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꾸준히 내실 있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서비스하는 일본의 데이터베이스 업계 모습 속에서 일본의 저력을 엿볼 수 있었다. 